

김·문, 5·18만남서 연금 협상 돌파구 찾을까

〈무성〉 〈재인〉

오는 18일 진행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만남이 이뤄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양 당 대표가 기념식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양 당이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두 대표는 의전상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게 된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이나마 두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당 대표의 얘기가 잘 풀린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처리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김·문 두 대표는 지난 2일 양 당 원내대표 등이 배석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여당은 전야제 참석도 검토

야당은 참여 여부 오늘 결정

국회 계류 법안 거론 가능성

하지만, 양 당 대표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정부 주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가보훈처의 14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국민 통합에 저해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로 광주 민심이 크게 분노하자 15일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통령도, 총리도 참석하지 않는 행사에 둘러러 서기보다는 시민단체 등이 구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개최하는 기념

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고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기념식에 참여할 경우,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의 상식 밖의 보도 자료로 광주민심이 들끓고 있어 18일 정부가 주도하는 기념식 참석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태극기를 흔들며 제창하기로 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도발로 기념식 참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오는 18일 정부 주최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18일 정부 기념 행사에 앞서 17일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가급적이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념식 참석을 이끌어 내는 방침이지만 중남미를 방문 중인 김영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외국 일정 등으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대표의 입이라는 대변인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외국 방문에 나서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불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어촌공, 인맥으로 504명 편법 채용”

감사원,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 특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504명에 달했다.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직종을 채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또 지난 20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

문연구원으로 위촉한 뒤 1인당 9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업무수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자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직원은 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2월~2010년 6월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벌원보관금 1억3600여만원을 출금, 일부만 공공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경기도 양평군 부리저수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5곳의 저수지가 무단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데도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연합뉴스

DJ센터 사장 신환섭 코트라본부장 내정

내달 5일 인사청문회

광주시는 14일 “재공모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신환섭(57·사진)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 내정자는 지난 1984년 KOTRA에 입사한 후 광주전남무역관 과장과 전북무역관장, 홍콩무역관장, 수출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고교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신 내정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이사, KINTEX 비상임이사, 한국무역전시학회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국내 전시컨벤션 분야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신 내정자의 30년 이상 KOTRA 근무경력, 인적 네트워크, 국내의 전시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 등을 높이 평가했다

고 설명했다. 시는 또 2013년 6월 제2센터 개관 후 호남권 MICE산업의 메카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대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26일경 시의회에 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의회-中 저장성 대표단

우호교류 증진 간담회

중국 저장(浙江)성 농업농촌위원회 위중다(俞仲達) 주임을 단장으로 한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6명이 13일부터 2일 간의 일정으로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우호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명현관 의장 등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저장성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으로, 위 주임 등은 방문기간 중 강진청자박물관과 한국민화뮤지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목포근대역사관, 유달산 등을 관람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명현관 전남도 의장은 “전남과 저장성이 서로 전체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U대회 홍보탑 제작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탑 제작식이 14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유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와 함께 제작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내 자동차 두달만에 1만대 증가 왜?

보성군, 렌터카영업소 유치 3662대 늘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영향 자가용 급증

전남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두 달 만에 1만대 가까이 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감은 인구 추이, 지역 발전 여부, 기반 시설 추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도내 등록차량대수는 81만1462대였으나 지난 4월 86만1112대로, 9650대가 늘었다. 이 기간 보성군에 무려 3662대가 신규 등록됐고, 나주시 1102대, 순천시 790대, 여주시 736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소한 곳은 영암군(-65대)이 유일했

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30대(강진군)에서 616대(목포시)가 증가했다.

보성군의 경우 렌터카 영업소를 유치한 것이 차량대수 급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수도권 렌터카 업체들이 차고지 증명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전남지

역 군지역으로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렌터카를 군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2000cc 1대당 80여만원의 취득세를 받아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고, 실제 렌트카는 수요가 있는 대도시에서 사용돼 대기 오염 등 차량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없다는 것이 보성군의 설명이다. 보성군의 경우 영업용이 9508대로, 자가용(1만 8899대)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미 4개의 렌터카 영업소를 유지한 영암군은 최근 유치 업체의 렌터카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의 영업용은 2만2462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업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로 인해 순수하게 자가용이 급증했다. 지난 2월 4만 2554대였던 나주시내 자가용 수는 두 달 만에 4만3694대로, 1140대가 추가됐다. 그만큼 인구도 동반상승했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임 주 러시아 대사 목포 출신 박노벽 원자력대사

정부는 14일 신임 주(駐)러시아 대사 에 목포 출신인 박노벽(사진) 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 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를 임명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의 정통 외교관으로, 1980년 외교부에 들어온 뒤 주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북미2·3과장, 주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구주(유럽)국장, 주우크라이나 대사 등을 역임했다.

모스크바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구주국장 등의 이력으로



러시아 업무를 비교적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성락 전임 주러시아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사의 공식 임명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시 임명됐던 미국, 일본(이병기→유홍수), 중국(권영세→김장수), 러시아(위성락→박노벽) 등 주요 4강 대사 가운데 안호영 주미대사를 빼고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

2015 해남우수영 울돌목의 소용돌이 치는 물살과 이순신 장군과 민초 후손들이 만들어 가는 역사재현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량역사체험마당

기간: 2015.4.18. ~ 7.26.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장소: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창사 63주년

프로그램

- 저장거리 체험
- 강강술래 공연
- 수문장교대식
- 맨손승어잡기 체험

장군복입고 사진찍기, 이순신 어복쓰기, 전통대장간체험, 연날리기 등